

21C 지식기반사회의 경주 도시조경의 과제와 방향

조세환

경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1971년 7월 16일 '신라고도는 웅대(雄大), 찬란(燦爛), 정교(精巧), 활달(達), 진취(進取), 여유(餘), 우아(優雅), 유현(幽玄)의 감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재개발 할 것(관광개발기획단, 1971:15)'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간 2단계 방식에 의거 추진되었으나, 1981년 이후 중앙정부의 개발지원은 전면 중단되어 각 중 규제로 인한 도시생활 환경의 악화와 재정난 등, 각 중 문제를 안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의 정보산업화와 지방자치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에 '관련하여 생활공간'으로서의 환경 및 도시개발과 '경제적 효용성 제고'의 도시개발이라는 명제가 주요 개발이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18-20 세기에 걸친 산업화시대를 거쳐,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경주 도시개발의 이념은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또는 '보전'과 같은 대립적 이념에서 벗어나 역사, 문화, 환경도시로서의 정체성 및 이미지 제고와 이것을 재화로 한 도시경제력 제고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발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시민을 삶을 질을 제고시키고,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개발이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분야로서 경주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최고의 역사·문화도시이며 관광도시인 경주의 조경 정책 및 시행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경주 도시개발에 있어 도시조경의 방향과 과제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경주 도시조경 현황분석

1. 경주의 도시환경적 특성

경주는 여타의 도시와는 상이한 환경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환경적 특징은 첫째, 역사도시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 도시가 1500여년 전의 유적이 도시 지하에 깔려져 있는 한편, 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토함산, 남산 등을 포함하여 도처에 문화유적이 전래적 자연적 환경과 함께 널려 있어 전체적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역사환경적 맥락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둘째, 경주는 관광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 그리고 보문관광단지 등으로 인해 비록 불균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관광도시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여타 도시와 같이 생활도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록 관광도시, 역사도시라는 도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이동하며, 교육하는 등의 생활공간적 성격의 도시라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생활도시적 성격이 문화재보호 등의 이유로 각 중 규제의 대상이 될 경우 그로 인해 빚어지는 환경적 불편함과 경제적 불리함은 현재 경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넷째, 경주는 시가지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주는 남산지구, 송화산지구, 토함산지구 등의 국립공원지역을 포함하여 각종의 산과 남천, 북천, 서천 등의 하천 그리고 감포와 같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경주시가지의 기본 가로망 패턴이 격자형이고, 일부 주거지역은 부정형이고 먼서 도로 또는 골목길의 노폭이 협소하여 광장 등의 시민의 모임과 휴식

또는 경관형성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도시 외부공간 활용에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환경적, 문화·관광적, 생활환경적, 수려한 자연환경적 특징은 경주의 조경정책 및 조경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목표 및 추진방법에 있어 반드시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2. 경주의 도시경관과 이미지적 특성

도시의 이미지는 환경전반에 대한 이미지의 하나로서, 그 특성은 환경지각과 체험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 아래 경주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이규목, 1993 :39-53)를 살펴보면 경주에 대해 '기억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 '불만한 곳', '즐길만한 곳', '부정적 요소' 등에 대한 설문응답 내용은 긍정적인 것은 모두, 왕릉을 비롯한 문화재 유적 등의 물리적 요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건물부조화, 저질성, 정비미비, 간판의 난립, 차량교통, 공장, 공단, 쓰레기 등이 부정적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깨끗한 도시', '편안하고 조용함'을 보고, 기억한다는 응답이 있고, 또한 '옛 분위기의 전통', '관광도시', '도시 보존 및 정비'를 의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이 있었다.

비록 이 연구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시사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주시까지는 시각적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삶의 장소로서 그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 예로서, 불만한 곳, 즐길만한 곳에 있어서는 불국사, 부문단지 박물관, 고분군과 잔디밭 등 문화재와 관광지를 제외하면 다른 생활도시적 장소는 전무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만한 곳과 즐길만한 곳에 대한 반응은 그 도시가 삶의 장소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고, 경주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경주의 도시시가지 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주는 신라왕경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숲, 우물, 산 등의 인공 및 자연물이 경주의 도시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경관적 특성과 의미(조세환, 2001:68-75; 조세환, 2000:65-72)를 지니고 있으나 앞의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이미지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그만큼 도시시가지 환경에 대한 정비, 홍보 등의 배려가 불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포함

하여 총체적으로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경주시 자체의 도시경관을 크게 향상시켜 경주시민의 삶과 역사·문화적 장소적 특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규목, 1993 : 51)을 역설하는 것도 향후 경주의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참고로 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3. 경주시 조경추진 사업현황 분석

정부 주도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경주개발의 주요 범위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거나 또는 도시적 토지 및 교통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으로 도시외곽 순환 및 관광도로, 교량건설 등과 같은, 도시 또는 관광기반시설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와 함께 문화엑스포장의 건설과 관련 도로망 확·포장과 도로변 정비, 주요관광지를 잇는 자전차도로의 건설, 북천의 문화·환경조성 관련 사업, 신라의 거리 조성계획의 수립, 대릉원 공원지구의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은 경주조경의 큰 줄거리로 볼 수가 있다.

그 외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가로수 증·보식사업, 시가지 보도포장사업 그리고 사적지주변 꽃단지 조성 등의 조경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경정책의 부재와 디자인적 전문성 결여로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III. 경주 도시조경의 과제와 정책방향

1. 경주도시조경의 정책방향

1972년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래 지금까지 경주의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기반시설조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맥락에서 볼 때, 향후 경주의 도시개발은 무엇보다도 21세기의 초산업주의의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경주시민의 생활환경의 질 제고, ·관광수입 제고를 위한 관광자원화 극대화, ·역사환경의 질 제고,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의 조성 등의 4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정책이 노정(路程)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충족을 위한 도시개발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주가 갖는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에 대한 정비와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며, 역사·문화적 정취가 배어있는 매력 있고 정체성 있는 도시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역사,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의 투자를 통하여 환경정비 및 생활의 질 제고, 관광수입의 증대, 역사환경의 보존 등에 대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주도시조경정책은 무엇보다도 경주도시개발의 상위목표로서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주도시조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주도시환경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종합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주도시조경 종합마스터플랜은 관광, 시민의 생활, 역사·문화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 리모델링계획이 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이러한 물적환경 기반을 더욱 탄력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각종의 아이디어도 집약된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주도시조경 마스터플랜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경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 설치를 비롯하여 조경을 총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경주도시조경의 조례 제정과 같은 수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예는 일본 나라(那良)의 경우, 도시경관조례 및 건축협정조례(정상태 외 2인, 2000:105-115)를 통하여 또, 경도(京都)의 경우 문화경, 생활경, 자연경의 세 영역(村野博司, 1992:30-35)을 고려하여 도시조경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행정조직에서 조경전문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경전문직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도시조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장을 포함한 경주 지도자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추진 의지, 그리고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시민의 역할 인식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시발전연구소, 1994 :155-157)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경주 도시조경의 과제

경주라는 도시는 여타의 도시와는 다른 독특한 환경적 특징이 있음을 앞에서 논하였다. 경주의 도시조경은 자연적, 관광적, 문화·역사적 환경 특성을 통합하는 도시조경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환경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너지효과란 기존의 경주시가지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생활환경의 악화, 관광수입의 저하, 역사환경의 보존 및 정비 등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한다.

1) 시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경 과제

(1) 공공기관 마당의 시민 소공원화 : 담장허물기와 소공원 조성

경주의 도시시가지는 전통적인 도시구조로 말미암아 도로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시대의 도로구조하에서는 시민들이 휴식하거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을 비롯한 법원, 경찰서, 시민문화회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담을 헐어내고 보도와 연결하여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마당을 도시 소공원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특별한 장소 주변의 담장은 전통문화의 차별화 맥락에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도심자전거길 및 휴게공간 조성(소광장/자전거 휴게공간 등)

현재, 경주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관광객을 위한 레크레이션적 기능을 잘 충족시키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전거 교통이 갖는 환경보전적 기능, 경제적기능, 건강증진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도심 및 시가지 자전거거체계와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전거길은 자전거 휴게광장, 자전거 집산광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길 포장과 각종 라인 마킹 등 시가지 외부공간의 시각환경 조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골목길 도로공원화 : 담장허물기와 정원조성

경주시가지 내 주거지역에는 정형 또는 비정형형의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으며, 이 골목길을 따라 콘크리트 담장이 둘러져 있어 주거지내의 공기 순환의 불순, 일조의 방해와 같은 환경적 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적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이 담장들을 허물고 골목길+마당

을 통합하여 정원으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와 전주시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4) 친환경적 자연환경정비 : 서천, 복천, 남천의 하천 생태복원

경주시가지에는 남천, 서천, 복천의 3개 하천이 도시의 자연환경 회랑(Ecological Corridor)을 잘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하천에 대한 접근성 불량, 하천의 인공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하천경관의 불량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뜻깊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하천들을 시민들의 휴식장소, 자연교육의 장소,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 도시경관을 제고시키는 아름다운 장소로 복원·조성하는 것은 경주에서는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 필요한 사항일 것이라 사료된다.

(5) 동네별 생태소공원 조성

현재, 경주시가지에는 근린공원이 비교적 부족한 형편이기도 하다. 이미 어린이공원 형태로 조성된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은 지금까지의 놀이위주에서 환경교육과 놀이를 함께 하며, 휴식도 취하며 생물과 더불어 사는 생태적 맥락의 소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소생태공원은 주거지의 골목길, 정원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경주 시가지 주거환경의 질을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시가지 도로의 도로공원화

경주시가지 내의 서천변 도로와 같은 광폭의 도로는 경주시가지에서 서천에의 보행접근을 막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광폭도로인 관계로 자동차 이용엔 편리할지 모르나 비인간적이고 반환경적 환경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경주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폭의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패턴의 변화 등으로 공원도로(Park Way)화 할 필요가 있다.

2) 관광객을 도시(시가지)로 유인하기 위한 조경 과제

(1) 시가지 상가지역의 정비 : 몰(Mall) 조성

경주시가지의 상가지역은 다른 유적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강력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래시장 정비는 물론이고 중앙상가지역에는 독창적인 몰(Mall : 보행자 성역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퍼사드(Facade)디자인, 포장패턴, 조명등, 휴게광장, 장식수목, 각 종의 장식문(Gate), 휴지통 등의 가로장치물이 조화롭게 설계된 환경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것이다.

(2) 만남의 광장 조성

만남의 광장조성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주에서의 만남의 광장은 경주의 이미지를 고려한 만남의 장소로서의 고유기능 충족과 더불어 좀 더 거시적으로 관광객의 경주시가지 유인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만남의 광장은 경주의 관문적 장소로서 경주의 이미지 창출과 동시에 거대한 주차장이 아닌 환경친화적 장소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자연환경과 시각적 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가지 유적지/상가/재래시장 등 보행 네트워크화

관광 및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주시가지 내에 있는 유적지와 상가, 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보행 네트워크는 외곽 주거지역의 골목길 등과 연계시키고 또한, 특정목적의 가로(예를 들면 신라의 거리 등)와 연계시킴으로써 도시전체를 보행천국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보행도로는 포장패턴의 변화, 특정의 가로수 식재, 소규모 휴게공간, 보행결절 지역의 소광장화, 인간척도적 가로시설물의 설치 등으로서 안락하고 매력있는 길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축물과 외부공간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경주시가지 건축물의 조형과 건축물 외관에 대한 설치기준을 조례로 마련하여 경주만이 갖는 독특한 도시건축미를 형성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고판, 버스정류장, 펜스, 패턴 있는 가로포장, 가로수 식재를 비롯한 각 종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건축물과 가로와 가로시설물이 일체가 되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시가지 내·외 공간에 관문(Gate) 조성

시가지 내 근린간 구분이 되는 지역 등을 선정하여 독특한 관문(Gate), 예를 들면 '독립문', 김천의 '영남제1관문' 과 같은 분위기의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시가지의 분위기를 한층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주시와 다른 시간(市間) 또는 도간(道間)에 이와 같은 관문을 설치함으로써 경주를 보다 매력 있는 도시로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황성공원의 경주시 중앙공원화

미국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3백 만평의 중앙공원 (Central Park)은 뉴욕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경주의 황성공원은 비록 규모에 있어서는 뉴욕의 중앙공원의 10%(3십 만평)에 불과하지만 역사, 문화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성공원을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정비하면 경주의 명물로서 시민들에게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시가지 관광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서천 폐철교의 경주명물의 조형물로 조성

서천의 폐철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걷고, 경관을 조망하고, 휴식하고, 독서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서천의 물이 흐르고, 서천의 생물이 서식하는, 그러면서도 거대한 조형물로서 랜드마크가 되며, 또 에너지의 낭비가 없는 친환경적 구조물로 조형하여 미래지향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는 경주의 새로운 명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3) 경주 도시이미지를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조정 과제

(1) 경주의 관문 정비: 역광장 및 버스터미널 광장 리모델링

경주에는 경주역, 고속버스터미널의 2개의 공공적 관문이 있다. 관문은 그 도시의 첫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광장들은 경주를 상징하는 제조성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잡한 광고 및 안내판은 최첨단의 관광안내시설로 교체되어야 하고 광장은 경주의 분위기를 흠뻑 낼 수 있는 재료와 패턴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각 종 휴식공간, 그리고 장식 조형물이 조화롭게 자리잡는 장소로서 제조성 되어야 할 것이다.

(2) 자투리 땅 소공원화

시가지 가로변 또는 주거지 근처에 놓여있는 자투리 땅을 쌈지공원 또는 소공원화 하여 시가지 경관요소로 또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투리땅은 도시의 아름다움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역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정 과제

(1) 시가지 유적주변 정비 및 소공원화

경주시가지 내에는 각 종의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

으나 이것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경주시가지 관광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들 주변환경에 대한 정비 미비와 이들에 대한 안내 및 접근체계의 미비로 사장화(死藏化)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주변을 소공원화로 정비하고 이들에 대한 관광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경주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천년의 고도로서 역사성, 유적, 유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적인 낡음, 그리고 경주의 자연환경과 같은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그 어떤 도시보다도 특징적인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경주의 환경적 특징을 바탕으로 21세기 초산업화의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해감에 있어 앞으로 경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시외곽 위주의 관광기반시설개발 중심의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생활도시로서의 경주시가지에 대한 가치인식과 함께 경주의 도시경관, 경주의 도시이미지, 경주의 도시적 의미, 경주의 도시적 정체성 등의 소프트웨어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조경 추진은 종합적이며 체계적 접근이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도시조경을 경주도시개발의 최상위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주도시조경마스터플랜'의 마련 및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조경직)마련' 및 '조경전문가의 충원', 그리고 '도시조경조례의 제정', 등의 종합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주시 행정부, 의회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경주의 도시개발은 이제 기반시설개발 중심의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경주의 특징적 환경이 빚어내는 도시의 정체성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개발전략을 바꾸어 나가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 1. 시가지와 보문단지, 불국사 등의 사적·관광지간의 관광 자원 분포와 이용의 불균형, 그에 따른 관광수입의 불균형(경주시민의 관광수입은 매우 미약한 편임) 등은 경주의 중요한 관광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용문헌

1. 관광개발기획단(1971)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청와대.
2. (사)도시발전연구소(1994) 21세기를 향한 부산어메니티플랜.
3. 이규목(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0. No.4.
4. 정성태, 조세환, 오휘영(2000)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시 경관관리법규의 비교-경주시와 나라시의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Vol.28. No.3.
5. 조세환(2000) 신라왕경의 도시상징성 연구- 토속신앙 관점에서 본 경관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ol. 27. No. 4.
6. 조세환(2001) 신라왕경의 경관형식과 공간범역 해석- 경주시 용강동 원지 발굴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ol.28 No.5.
7. 村野博司(1992) 京의 生活美景 . Japan Landscape. No.23.